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정영철**

2019년 초부터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기존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구별되는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사상적 좌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정은 시대는 이전까지의 체제 유지와 관리를 뒤로하고, 새롭게 당-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는 체제의 재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가 재등장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경제건설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기치가 요구되었다. 2017년 11월 30일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제일주의’는 2018년 제기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에 따른 경제건설의 본격화를 위한 ‘발전의 담론’으로서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한 ‘발전’의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 과제인 ‘체제 재건설’을 위한 동원과 발전의 담론으로서 국가제일주의가 제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우리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 체제재건설, 경제건설총력집중, 김정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5772).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 서론

2019년 초부터 북한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상징에 대한 선전과 출판은 물론 『로동신문』에는 이례적으로 “우리의 국가”라는 노래의 가사, 악보가 실렸으며,¹⁾ 급기야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 김정 일 시대에 제기되었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대신하여 ‘국가제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두 개의 국가를 강조하는 것이며, 통일보다는 당면하여 두 국가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외교적 행보가 강화됨에 따라 나타난 ‘국가’의 문제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²⁾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제일주의’가 일차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적 좌표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정적 ‘통일 담론’이거나 ‘외교 담론’으로서 이를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아 보인다.

북한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북한의 시대적 담론은 당대의 필요와 당위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으며, ‘주체사상’이라는 순수 이데올로기의 정립 이후에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선군사상 등의 실천 이데올

1) “우리의 국가,”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2) 전자의 대표적인 입장은 『신동아』 2019년 9월호의 “北 ‘우리민족끼리’ 폐기... ‘두 개의 조선’ 전략 가동”을 들 수 있으며, 이 기사에서 김근식은 “한국을 민족적 관점이 아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로 여기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후자는 연합뉴스의 시장화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국가제일주의’를 바라본다. “북, ‘수령’보다 ‘국가’떠우기, 시장경험주민의식변화 반영,” 연합뉴스, 2019년 1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8120500504?input=1195m>(검색일: 2020년 1월 2일).

로기뿐 아니라, ‘우리 식’ 등의 이데올로기가 제시되어 왔다. 이는 곧 북한이 시대적 과제 - 국가적 과제 - 의 해결을 위해 주민 동원을 위해서든 혹은 국가적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든, 끊임없이 위로부터의 이데올로기 구축을 시도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역시 김정은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위해 제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당의 정상화 및 이를 넘어선 국가의 정상화³⁾이며, 2016년 제7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전 사회적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은 ‘국가’가 다시금 재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국가의 재등장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계승과 혁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주민들에게 국가적 과제를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청되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북한의 정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4)을 보면 이데올로기에 대해 ‘사상, 사상의식’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자연과 사회 또는 그 개별적 대상에 대한 관점과 입장, 견해의 체계’라 풀이하고 있다. 반면 이념(리념)은 ‘진리나 이상적인 것에 대한 지향, 관념과 사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고 규정하고 있다.⁴⁾ 이렇게 본다면, 북한에서는 이념, 이데올로기 등이 사상

3)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란 그간 김정일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김정은 시대에는 이러한 위기의 국면을 넘어선 당-국가체제의 구축 및 발전의 과제를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국가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패한 국가’에 비교하여 당과 국가기구가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및 사상의식과 동일어로 쓰이고 있으며, 그 핵심은 ‘관점과 입장 및 견해’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적 과제를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국가 혹은 미래의 국가를 그려보며, 현재 제기되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상적 좌표로서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⁵⁾

이 글은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앞으로의 북한의 변화에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과거 마이어(Alfred G. Meyer)에 의해 제시된 사회주의 혁명 국가의 변화로서 ‘체제 건설(system building)’에서 ‘체제 관리(system management)’라는 개념을 동원할 것이다. 특히, 이 글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의 ‘체제 건설’을 지나 김정일 시대의 ‘체제 관리’를 경험하고, 현재에는 다시금 김정은 시대에 ‘체제 재건설(system re-building)’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체제 재건설’의 시기에 요구되는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제시되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4)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에 수록된 항목 중에서.

5)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는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등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와는 다른 의미의 ‘담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제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볼 것인지 혹은 하나의 담론 체계로 볼 것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문장과 내용의 맥락에 따라 사용하고자 한다.

2. 김정은 시대, 국가의 재등장

1) 체제 건설, 체제 관리, 그리고 체제의 재건설

마이어는 사회주의 국가의 변천과정을 체제 건설(system building)과 체제 관리(system management)로 구분한다.⁶⁾ 이러한 이론적 전망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수렴(convergence)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기존의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의 고유성을 배제하고, 결국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⁷⁾ 이러한 전망은 로웬탈(R. Lowenthal)의 혁명국가(revolutionary state)에서 혁명 후 국가(post-revolutionary state)로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즉, 혁명 국가에서 혁명 후 국가로의 변화와 유사하게 사회주의는 ‘위대한 지도자’의 혁명의 시기가 종말을 고한 이후 관료체제로 진입하게 되고, 이는 곧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마이어의 구분에 따르면 스탈린 시기는 분명 체제 건설의 시기였으며, 이후에는 거대한 관료체제에 들어서게 되며, 이 시기부터는 테크노크라트를 비롯한 새로운 지배계급(new class)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이어의 구분에 따르면, 북한 역시 김

6) 마이어의 이러한 진단은 사회주의 국가 역시 산업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 등의 자본주의-사회주의 수렴론이라는 견지에서 제시되고 있다.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Char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7) 물론 이러한 전망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로의 수렴을 말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일부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단일정당체제에서 복수정당체제로의 수렴, 세계 정부로의 수렴 등의 다양한 전망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Ibid.*

일성의 체제 건설의 시기와 김정일의 체제 관리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화된 구분이 북한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김정일 시기가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건설과 공고화를 이루어낸 시기이기 때문이다.⁸⁾ 문제는 체제 공고화를 이룬 시점부터 북한 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사회주의 체제의 대격변과 변화 속에서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북한은 1990년대 이래로 체제의 유지와 동시에 체제의 발전을 동시에 고민하게 되었고, 그 핵심은 안보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안보’를 우선하는 발전의 모색이었다.

1974년 이후의 김정일 시기는 북한의 체제가 수령제 국가로의 진입과 동시에 이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가는 시기였다.⁹⁾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령제 체제의 유지와 관리였다. 결국 체제 건설의 시기를 뒤로하고, 김정일 시기의 체제 관리(혹은 체제 공고화)의 과정은 심각한 위기의 시기였다. 사실,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체와 동력, 그리고 혁명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전망을 낳았지만, 그 핵심은 체제의 유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의 유지와 관리와 함께 이후의 발전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결국

8) 이를 반영하여 정영철은 김정일의 시기를 체제 관리의 시기가 아니라 체제 공고화(system consolida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영철, 『김정일리더십연구』(서울: 선인, 2005), 135쪽. 여기서 체제 공고화란 ‘체제건설’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체도를 더욱 공고화하고, 미처 정비되지 못한 체도를 만들어내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까지 갖추는 단계를 의미한다.

9) 1967년 수령제 체제의 성립 이후, 이를 실제로 법적, 제도적으로 디자인 한 것은 김정일의 일련의 활동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위의 책.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지금까지의 체제 유지와 관리를 뒤로하고, 새롭게 당-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는 체제의 재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과거의 김일성-김정일의 시기와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앞선 시기와 다른 점은 첫째,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사회주의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도 과거의 그러한 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을 둘러싸고(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된 지형 역시 탈냉전을 넘어서서 완전하게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과거의 적대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적대와 갈등-화해와 협력의 길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 내부의 상황도 바뀌어 김정일의 시기를 뒤로 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내부의 시장화의 진전, 세대의 교체 등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조건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이전의 선군정치를 마냥 지속할 수도 없었고, 과거 김일성의 시대처럼 수령제 체제로의 복원만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김정은에게 남겨진 과제는 정치적으로는 수령제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구축이면서도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경제건설이었다.¹⁰⁾ 이미 2012년 김정은의 첫 대중연설에서 그가 밝힌 ‘선군정치 + 새 세기 산업혁명’은 바로 안보와 발전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제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10) 이에 대해서는 Youngchul Chung et al., “State strategy in the Kim, Jong-un era: The “Byongjin” policy of pursuing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Korea Observer*, Vol.47, No.1(2016).

것이 바로 당의 정상화였고,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었다. 결국 당의 정상화는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로의 복귀였고, 이는 곧 체제의 재건설로의 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2) 병진 노선의 의미와 체제 재건설의 과제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김정은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의미했다. 이미 2009년부터 후계체제 구축을 서둘렀던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선군정치를 지속하면서도 경제 분야에서의 일련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군수의 민수 전환’(일명 spin-off)을 넘어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구상하기 시작했다.¹¹⁾ 이를 위해서 그간 군수에 집중되던 자원 배분의 일부 변화,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및 CNC로 상징되는 자동화·무인화 등이 이 시기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 앞선 김정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앞에 놓인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의 조성이었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점증되고 있던 한반도 위기 속에서 2013년 ‘병진노선’의

11)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의 ‘노력 동원형 + 기술 혁신형’ 발전을 넘어 ‘과학기술 기반’의 발전으로의 변화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발전 전략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호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 인공위성(광명성3호)발사 시도와 CNC기술 개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2015); 변학문, “김정은 정권 ‘새 세기 산업 혁명’ 노선의 형성 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8권 3호(2016); 변학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 『통일과평화』, 제10권 2호(2018) 참조.

채택은 이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의 하나였다. 즉, 안보를 우위에 둔 발전이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발전을 위한 선안보체제의 구축이었다.¹²⁾

2013년의 ‘경제건설과 핵무력증강’의 병진노선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를 즈음하여 본격적으로 당 체제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장성택의 숙청, 그리고 일련의 군부 인사의 숙청은 한편으로는 계승의 시기에 나타나는 측근으로의 권력교체이면서 동시에 그간의 선군정치하에서 비대해진 군부에 대한 정리 작업이었다.¹³⁾ 이러한 군부 정리와 함께 한편으로는 ‘핵-미사일 무력’의 개발과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2년 이후 2017년까지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질주하던 북한의 핵 시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은 결국 안보 환경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모아진다. 실제로 북한이 목적에 두었던 것은 이러한 안보 환경의 마련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었다. 이는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간접적으로 말해주는데, 핵-미사일 시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김정은은 세계를 향한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한창일 때에도 경제분야를 비롯한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지도

12) 정영철은 북한의 전통적인 딜레마를 ‘안보와 발전’의 딜레마로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병진노선은 ‘발전을 위한 안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Youngchul Chung et al., “State strategy in the Kim, Jong-un era: The “Byongjin” policy of pursuing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13)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동엽,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경제와 사회』, 제122호(2019) 참조.

<표 1> 김정은 현지지도 동향(공개활동 동향)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21.)
현지지도	21	47	53	64	52	29	35
군 시찰	25	14	13	8	5	5	1
지도	6	19	31	8	20	15	0
참배	11	13	9	12	7	7	2
사진촬영	19	17	12	18	14	9	1
관람	25	26	20	9	6	5	2
방문	5	5	2	0	2	2	2
회의진행	6	7	10	6	6	8	3
행사참석	8	6	1	3	3	0	1
열병/행진	1	1	0	2	1	1	1
참관	0	2	0	9	5	4	1
돌아봄	15	38	16	9	2	1	1
접견/면담	2	8	2	4	1	1	8
연회	4	2	0	0	1	3	2
축하/표창	1	2	1	1	2	2	0
연설	1	3	2	1	7	4	1
산행	0	0	0	1	0	1	0
선거	0	1	1	1	0	0	0
정상회담	0	0	0	0	0	0	6
현지요해	0	0	0	0	0	0	1
합계	150	211	173	156	134	97	69

주: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이 표는 군, 경제, 정치, 사회문화, 기타 등의 분류가 아니라 『노동신문』이 그의 공개활동에 대해 붙인 이름이다. 중요한 것은 표에서 보듯이 ‘병진노선’의 시기에도 군에 대한 현지지도나 시찰보다는 여타의 분야(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현지지도와 시찰, 참관 등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자료: 홍민,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지도 행보 속 정책 코드 읽기,” Online Series, CO 18-36(통일연구원, 2018), 3쪽.

와 참관에 더 많은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쪽 눈으로는 안보를 위한 무력증강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한쪽 눈으로는 경제건설에서 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체제 재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경제건설이 궁극적인 목표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준비 혹은 핵을 통한 ‘대담판’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김정은 시기의 핵심 과제가 체제의 정상화 즉, 체제의 재건설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핵심 과제는 가장 먼저 당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 시기, 비록 당이 통치의 핵심 기구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군부의 두드러진 약진 속에서 당이 제 역할을 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당-국가체제의 정상화 즉, 당의 정상화를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했다. 이를 위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재정비하고, 인사교체 및 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의 재정비를 다그쳤다.¹⁴⁾

당의 정상화는 곧 이데올로기와 당적 지도 체계의 정상화를 의미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등장한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일 시대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의 초기 통치의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되었다.¹⁵⁾ 주목되는 것은 앞선 주체사상-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는 것에 비해, ‘김정일 애국주의’

14) 최근 발간된 『조선로동당력사』에 의하면 2013년 6월 19일 김정은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동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당의 유일적령동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새롭게 발표되었다고 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역사』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385쪽.

15) 김정일 애국주의는 2012년 3월 김정은의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처음 등장했고, 두 달 후 『노동신문』을 통해 공식 등장했다고 한다.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2019), 319쪽.

라는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1980년대 후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재해석을 통해 호명하는 민족주의적 부름이자 동시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의 재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김정일 애국주의가 제기되면서 ‘김정일’과 함께 ‘애국’이 강조되고, 애국과 관련된 사상적 무장, 인민대중 제일주의, 그리고 최고의 애국으로서 경제발전예의 헌신 등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당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면서 마침내 2016년 제7차 당대회로 귀결되었다. 당대회의 개최는 당의 인물, 조직, 그리고 사상과 노선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이 지향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아울러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대회의 개최는 당의 정상화에 기반한 당-국가체제의 재정비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⁷⁾ 이로써 당이 정치적 참모부로서, 그리고 국가가 가장 포괄적인 정치 조직이자 인전대로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재등장은 역설적으로 핵-미사일의 폭주의 외중에서도 그 궁극의 목적은 2012년 김정일이 대중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인민생활향상-경제발전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사실 이를 위해서도 대중을 국가의 주위로 결집시키고, 동원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지금까지의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장화의 진척, 새로운 문화적 변용, 그리고 군부의 후퇴 등의 개별적인 현상이

16) ‘김정일 애국주의’를 카리스마의 일상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분석한 논문으로는 강혜석, 위의 논문.

17) 정영철, “북한 제7차 당대회, 본격적인 김정은시대 선포” 『민족화해』, 제78호 (2016), 38~41쪽.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서 ‘국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3.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탄생과 의미

1) 국가의 재등장과 ‘국가제일주의’의 공식화

김정은 집권 이후,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는 그 동안 선군정치하에서 강화되었던 군부 발언권의 후퇴였다. 비록 병진노선에 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시험 등의 과정에서 군부가 두드러지게 등장했지만, 이를 이끌어 가는 군부 인사들의 잦은 교체와 발언권의 퇴조가 이어졌다.¹⁸⁾ 특히, 지난 2016년 당대회에서는 박봉주 당시 내각 총리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차지하면서, 군 분야에서도 내각이 어느 정도 발언권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자원 배분에서 군 우선이 변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군의 경제 혹은 군에서 확보된 기술의 민수로의 전환(spin-off)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시에 당이 점차 자리를 확보하면서 당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경제 사업에서의 내각의 주도성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에 대한 통제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즉, 국가가 시장에 대한 새로운 방침들

18) 김정은 집권 이후, 리영길, 현영철 등의 군부 핵심인사들의 숙청과 잦은 해임, 직급 강등과 복귀 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동엽은 ‘김정은식 군부 길들이기’라고 분석한다. “김정은식 군부 길들이기 … “즉흥적 처분 체제불안 키울수도,” 『한겨레신문』, 2015년 5월 13일.

을 내 오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를 확대하여 기업, 무역 등의 분야에서도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 국가의 무기력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국가에 의해 시장이 조직-재조직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의 당대회까지 당의 정상화 그리고 각급 당 외곽조직 등의 정상화에 뒤이어, 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의 재정비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의 재정비 속에서 앞으로 재건설할 국가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슬로건하에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소위 ‘5대 강국’을 제시하면서 그 미래의 모습을 선언하였다.²⁰⁾ 이 중 정치사상의 강국과 군사의 강국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바로 경제의 강국이었다. 그리고 경제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에 근거한 경제발전이었고, 따라서 과학기술의 강국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던 것이다.²¹⁾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의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강국 건설이다. 인민생활 향상은 국가의 당면과제, 우리 당과 국가의 최대의 과제, 수령님들의 유훈 등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진짜 애국은 바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실

19) 정영철, “북한경제의 변화: 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제126호(2019), 143쪽.

20) 2016년 당대회에서 발표된 5대 강국은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과학기술의 강국’, ‘경제강국’ 그리고 ‘문화의 강국-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다.

21) 이에 대해서는 강호제, “북한 당대회, 볼 것 없는 잔치였다?” 『통일뉴스』, 2016년 5월 16일; 변학문, “김정은 시대 북한을 읽는 키워드, 과학기술,” 『통일뉴스』, 2016년 5월 24일.

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²⁾ 또한, 북한 역시 경제 활성화 및 인민 생활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시장에 대한 활성화 조치 및 확대, 국가 유통망의 확대를 비롯한 공급의 확대를 넘어 최근에는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에서의 포전담당제의 실시 그리고 은행 및 재정, 금융 체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하의 개혁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²³⁾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 조치들 이외에도 과학기술을 위한 교육의 강화 - 교육제도의 개편 - 그리고 일부 주택 및 건설에서의 사적 투자의 허용과 그 이익의 분배 등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과거의 중앙급 특구와 구별되는 지방 경제특구 즉, 경제개발구까지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들과 함께 초기 세간을 놀라게 한 문화적인 변용까지 발생하였다. 이른바 모란봉 악단의 등장이었다. 이는 단지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그간 1990년대부터의 일련의 변화를 위로부터, 즉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체제 내화시키는 것이었다.²⁴⁾ 시장화, 정보화라 불리던 북한 사회의 변화를 국가가 위로부터 수용하고, 이를 하나의 ‘국가문화’로 재조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세계적 수준을 따라잡을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판 세계

22) 이런 점에서 당 제7차대회의 핵심 과제는 바로 인민생활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 강령을 수행하는데서 주타격방향은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명하, “경제건설대진군은 사회주의건설이 더 높은 단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역사적진군,” 『근로자』, 제8호(2018), 33쪽.

23)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것으로는 이종석·최은주, 『제재속의 북한경제』(성남: 세종연구소, 2019).

24)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문화의 변화,” 『문화정책논총』, 제31권 2호(2017), 302쪽.

화, 현대화라 할 만하다.

이처럼 각각의 분야에서 국가가 재등장하고,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건설이 나서게 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요구되었다. 2013년 등장한 ‘김정일 애국주의’가 한편으로는 김정일이라는 ‘선임 수령’의 계승을 의미한다면, 201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전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계승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을 의미하였다.²⁵⁾ 북한의 사전에 따르면 국가란 “일정한 령토 안의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권력기관”²⁶⁾으로 정의된다. 즉, 국가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권력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당의 현실적인 목적 역시 국가의 강화와 발전에 있는 것이며, 국가를 향한 전체 주민의 충성 혹은 애국은 곧 당이 지도하는 국가의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8년의 일련의 변화, 즉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의 변화 속에서 본격적인 경제건설에 나설 수 있는 대외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 조건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의 이데올로기는 한편으로는 민족적, 국가적 자부심과 긍지를 부추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동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30일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²⁷⁾ 그리고 이후, 2018년 11월 『노동신문』에 다시금 등장

25)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계승이면서 발전이라고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승화발전,” 『민주조선』, 2019년 3월 26일.

2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151쪽.

하였고,²⁸⁾ 2019년 들어 『노동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에서 국가제일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주장되었다. 특히, 2018년 『근로자』 5호에는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글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위대한 기치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쟁취하지는 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든 당의 숭고한 의도가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도 양보도 없이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것이며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위대한 기치”인 것이다.²⁹⁾ 2017년 처음으로 등장했던 ‘국가제일주의’가 2018년 근로자를 통해 기본 뼈대가 완성된 이후, 2019년 들어 본격적으로 공식화되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만들어진 <우리집 이야기>(2016년 제작)라는 예술영화에서 이미 ‘국가’에 대한 호

27) 이지순에 의하면, 당시 『노동신문』에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새겨야한다”는 구절로 등장했다고 한다. 아직은 ‘민족제일주의’와 함께 애매한 위상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No.4(2019), 2쪽.

28) 이때의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 수 있는 근본원천’으로 호명되고 있다. “주체조선의 공민된 긍지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노동신문』, 2018년 11월 6일.

29) 편집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자,” 『근로자』, 제5호(2018).

명과 애국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³⁰⁾ 즉, ‘제7차 당대회 이후의 김정은 시대의 정책전환을 전조하는 상징적인 영화’였던 것이고,³¹⁾ 국가 및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기(國旗)에 대한 강조가 ‘국가제일주의’의 등장과 함께 중요한 표상으로서 제시되었다.³²⁾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그 내용상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발전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를 열어놓’는 것을 들고 있다.³³⁾ 즉, 현재 김정은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서 인민생활 향상을 중심에 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적 기치로서 ‘국가제일주의’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밝힌 미래 국가의 모습으로서 사회주의 5대강국 건설 중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경제강국-문명국 건설을 핵심적인 과제로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2017년까지 이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병진노선하에서 경제건설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또한 대외적인 여건 또한 여의치 못했다. 따라

30)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는 전영선, “영화 속 북한이야기 1: 문화모니터 3,” 『민족화해』, 제97호(2019);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 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31)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32) 북한의 국가상징으로서 기존의 국기(國旗), 국가(國歌) 외에 국수(國樹), 국조(國鳥), 국견(國犬) 등이 지정되어 선전되고 있다. 국수로서는 소나무, 국조는 참매, 그리고 국견은 풍산개이다.

33) “사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노동신문』, 2019년 1월 21일.

서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에는 2018년의 급격한 정세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제기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에 따른 경제건설의 본격화를 위한 ‘발전의 담론’으로서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2019년 초 『노동신문』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가제일주의’의 핵심은 경제건설이며 더욱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요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³⁴⁾

결국 북한이 2019년 본격적으로 제기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 과제로서 인민생활 향상-경제건설을 위한 발전의 담론으로서, 2016년의 제7차 당대회에서 밝힌 ‘5대 강국 건설’의 청사진과 이를 가능케 할 정세의 변화로서 2018년의 남북, 북미관계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김정은 시대부터 다시금 등장하기 시작한 ‘국가’ 특히, 정상화된 국가를 만들어내고, 이에 기초하여 당-정-군의 재조직 및 재정상화라는 ‘체제 재건설’이 놓여 있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재건설된 국가, 체제는 과거의 국가, 체제가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국가, 체제라는 것이며, 그 방향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세계 경제, 세계 체제 내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세계화된, 문명화된, 현대화된 국가의 건설인 것이다.

2) 발전을 위한 ‘동원 담론’으로서 국가제일주의

201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국가제일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말하지만, 실천적인

34)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노동신문』, 2019년 1월 27일.

측면에서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로 표현된다.³⁵⁾ 그리고 이를 위한 오늘의 투쟁은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돌격전, 연속 공격전”으로 규정된다.³⁶⁾ 흥미로운 것은 ‘국가제일주의’의 2대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국가발전의 실천적 의지 중에서 현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자각과 의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각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러한 내용은 앞서 제기되었던 ‘민족제일주의’가 주로는 긍지와 자부심 즉,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강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국가제일주의’는 이를 넘어서 자랑할 만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더 중요한 초점임을 말한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김정은의 수많은 연설 혹은 담화(일명 노작)에서도 경제건설을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첫 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담화에서도 “현 시기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 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³⁸⁾ “근로단체 조직들 앞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경제강국 건설

35)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노동신문』, 2019년 1월 21일.

36)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 『노동신문』, 2019년 1월 29일.

37)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승화발전,” 『민주조선』, 2019년 3월 2일.

38) 김정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1년 12월 31일).

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⁹⁾ 또한, 그간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도 “우리 인민들이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하여 알게되면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더 용기백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⁰⁾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바로 한 편으로는 자신들의 강력한 억제력의 구축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 세대 넘게 끌어온 ‘핵 위기’의 국면을 끝내야 하는 것이었다. 이미 김정은의 첫 대중연설에서도 이러한 뜻을 밝혔고, 이후에도 그러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⁴¹⁾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건설의 전략 혹은 노선과 수정되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노선’이 은근슬쩍 사라지고, 농업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노선이 주되게 강조되기 시작하였다.⁴²⁾ 또한, 과학기술

39) 김정은,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전국당근로단체부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5년 5월 5일).

40) 김정은,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그쳐나가야 한다”(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6년 3월 6일).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주체적 국방공업을 강화하여 강위력한 국방력, 전쟁억제력으로 적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조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여야 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로력을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결국에는 국방공업의 강화가 경제건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의 글.

41) 2013년 경공업대회 연설에서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경공업대회에서 한 연설”(2013년 3월 18일).

42) 소위 말하는 경제건설의 주 타격 방향으로서 농업전선과 경공업전선이 제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방향이 중공업 특히, 금속, 석탄, 전기, 화학 등의 소위 선행부문에 대한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농업과 경공업은 인민생활 향상에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민생활’의 향상이

이 강조되면서 과거와 다른 ‘자력갱생’과 발전의 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즉, 발전을 위한 ‘동원’이 ‘인민의 육체적 노동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근거한 ‘인민의 지식’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초기 가장 먼저 등장했던 교육과 과학에 대한 강조는 단지 이들에 대한 우대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의 개편,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교과 내용으로의 개편 등은 모두 이러한 국가발전의 전략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추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⁴³⁾ 그래서 김정은은 “로동계급의 혁명성에 현대과학기술을 결합시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⁴⁴⁾

결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러한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위한 ‘발전’의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에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18~2019년의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즉, 2017년까지의 병진노선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세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2018년부터 북한이 급격하게 대화와 협상국면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당시까지의 ‘안보’ 즉, ‘발전을 위한 안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경제건설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라는 구호가 헛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3) 북한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44) 김정은,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6년 10월 25일).

리고 2018년의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전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2019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하면서 북한의 몇 가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상징을 앞세우는 여러 가지 현상들,⁴⁵⁾ 당보다는 국가를 앞세우는 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 및 국가상징을 통한 인민 동원 - 이는 과거의 노동력 동원과는 구분된다 -, 경제 건설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인민의 결함,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는 경제발전전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평화적 환경의 조성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영화

45) 최근 북한의 국가적 행사에서는 과거의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인 ‘애국가’가 먼저 시작되고, 국가적인 상징이 중심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의례’에서 말 그대로 ‘국가’의 상징을 통해 정상화된(?) 국가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여러 가지 상징을 우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도 국가 상징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 및 국가상징의 강조는 강해석이 분석한 것처럼, ‘카리스마의 일상화’에 대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다.

46) 이런 현상을 근거로 ‘민족’보다는 ‘국가’를 앞세우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남북관계 혹은 통일 문제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인과적 설명이라 하기 어렵다. 여전히 ‘민족’에 대한 담론 특히, ‘조선민족 단일성’에 대한 연구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외부를 향하기보다는 주로 내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제일주의’ 담론은 호명당하는 주체, 청중이 ‘북한’의 인민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담론이 ‘민족’보다는 ‘국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변용될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민족’과 ‘국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이를 통일과 연관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등에서 과거 당이 전면에 나선 것과 달리 당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서 ‘정치사업’에 집중하고, 국가(즉, 내각 등)가 경제 및 행정의 전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제일주의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기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정은 시대의 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담론이자 그 대상은 무엇보다 바로 ‘북한 인민’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김정은 시대의 과제로서 ‘체제 재건설’을 위한 동원과 발전의 담론으로서 국가제일주의가 제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2019년 2월의 ‘하노이 교착’⁴⁷⁾ 이후,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초기의 선전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등장 배경에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놓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호의적인 환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제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제기된 의도와 그 방향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건설, 러시아-중국 등을 통한 외교의 다변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방 건설에서의 자위력의 확대, 강화는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일 시대를 뒤로하고, 김정은 시대의 기치로서

47) 여기서는 2019년 2월의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결렬(혹은 실패)를 ‘하노이 교착’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여전히 북미 간 회담(협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북한과 미국 모두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이행을 서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목표로 하는 ‘변화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과거 김일성 시대의 ‘체제 건설’, 김정일 시대의 ‘체제 공고화 및 관리’의 시대를 뒤로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김정은 시대의 ‘체제 재건설’의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2017년까지의 ‘핵-미사일 폭주’를 마무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제일주의는 내부를 향한 담론이라는 점에서 경제건설을 위한 동원의 기능을 슬로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노동력 동원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근거한 ‘자력갱생’과 동원의 차이점이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소위 말하는 ‘5대 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에서 이미 표출되었고,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의 재건설이지만, 동시에 북한판 ‘개혁-개방’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지난 ‘하노이 교착’ 이후, ‘새로운 길’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것이 유효할지에 있다. 사실, 국가제일주의는 앞서도 밝혔듯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이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요한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북한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새롭게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하노이 교착’ 이후,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차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북미 간 관계의 힘든 여정이 예상되는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라고 밝

히면서,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지난 12월 역사상 유례없는 나흘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 자립을 통한 경제건설을 최우선의 과제로 재천명하였다. 비록 정치적, 군사적 공세의 강화가 함께 제시되고 있지만, 북한의 제시하는 ‘새로운 길’ 역시 경제건설 최우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이 순탄치 않음을 의미하듯, 2012년 ‘다시는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⁴⁹⁾ 이는 자신들의 ‘새로운 길’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동원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해 준다. 비록 미국과의 협상이 난관을 겪지만, 그리고 남북관계가 쉽지 않겠지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의 노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강조하는 실천의 의지 즉,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치려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⁵⁰⁾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한 담론이자 김정은 시대의 기치로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접수: 2월 11일 / 수정: 3월 23일 / 채택: 4월 1일

48)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2019년 4월 12일).

49) 김정은, “2012년 연설”과 전원회의 보도문,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50) 김정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4권 4호(2019), 45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1,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2) 논문

김정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1년 12월
31일).

_____,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
을 더욱 높이자”(전국당근로단체부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5년 5월 5일).

_____,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그쳐나가야
한다”(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6년 3월 6일).

_____, “경공업대회에서 한 연설”(2013년 3월 18일).

_____,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조선직
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6년 10월 25일).

_____,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최
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2019년 4월 12일).

김정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학』, 제64권 4호(2019), 45쪽.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자,” 『근로자』, 2018년 5호.

3) 신문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 『노동신문』, 2019년 1월
29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노동신문』, 2019년

1월 27일.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노동신문』, 2019년 1월 21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승화발전,” 『민주조선』, 2019년 3월 26일.

“우리의 국가,” 『노동신문』, 2019년 1월 1일.

“주체조선의 공민된 긍지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노동신문』, 2018년 11월 6일.

4) 기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이종석·최은주, 『제제속의 북한경제』(성남: 세종연구소, 2019).

정영철, 『김정일리더십연구』(서울: 선인, 2005).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2) 논문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No.4(2019).

전영선, “영화 속 북한 이야기 1: 문화모니터 3,” 『민족화해』, 제97호(2019).

정영철, “북한 제7차 당대회, 본격적인 김정은시대 선포,” 『민족화해』, 제78호(2016).

_____,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문화의 변화,” 『문화정책논총』, 제31권 2호(2017), 288~305쪽.

_____, “북한경제의 변화: 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제

126호(2019), 134~159쪽.

홍민,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지도 행보 속 정책 코드 읽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8~36(2018).

3) 기타

“북, ‘수령’보다 ‘국가’ 띄우기, 시장경험 주민의식변화 반영,” 연합뉴스, 2019년 1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8120500504?input=1195m>(검색일: 2020년 1월 2일).

3. 국외 자료

1) 논문

Chung, Youngchul et al., “State strategy in the Kim, Jong-un era: The “Byongjin” policy of pursuing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Korea Observer*, Vol.47, No.1(2016).

Meyer, Alfred G., “Theories of Convergence,” Char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Our State First’ in North Korea: Reappearance of the State and the Ideology of ‘System-Rebuilding’

Chung, Young Chul(Sogang University)

North Korea advocated ‘our state first’ in early 2019. This differentiates from the ‘our nation first’ principle, the new ideological coordinate in the Kim Jong-un era.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shifted from the ‘system management’ of the Kim Jong-il era in favor of ‘system rebuilding’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is required a new ideological slogan with the reappearance of the state and pursuit of economic growth as the ultimate goal. The ‘our state first’ — first appearing in the November 30, 2017 edition of the *Rodong sinmun* — can be seen as the ‘discourse for development’ for economic growth following the new strategic line of ‘concentrating all efforts on economic construction’ announced in 2018. As a result, ‘our state first’ can be analyzed as the ideology and discourse for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f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ing. 'Our state first' is suggested as the discourse for mobilizing the people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rebuilding' in the Kim Jong-un era.

Keywords: Our State First, reappearance of the state, system rebuilding, strategic line of 'concentrating all efforts on economic construction', Kim Jong-un.